천불정사, 누림주간보호센터 문연다

12월 18일 준공 및 개원식 열어
회주 고담 스님 2018년 3월 발원

건축면적 176.14㎡ 총 4층 규모
전문서비스제공 도심포교 재도약
고령과 노인성 질병 어르신 지원
1~5등급·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천불정사가 12월 18일 누림주간보호센터 준공 및 개원식을 경내 일대에서 개최한다.

도심포교의 중심지로 활동해온 부산 천불정사(회주 고담)가 누림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완공했다. 천불정사는 12월 18일 경내 일대에서 누림주간보호센터 준공 및 개원식을 개최한다.

부산을 대표하는 대학가에 위치한 천불정사는 그동안 인재불사에 앞장서 왔으며,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도량으로 활동해왔다. 이번 누림주간보호센터 건립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교도량으로 또 한 번 발돋움한다.

누림주간보호센터는 부처님 자비정신의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전법과 포교에 매진해온 천불정사 회주 고담 스님의 원력으로 건립됐다. 이름의 '누림'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누리'라는 의미로, 고담 스님이 직접 지었다.

누림주간보호센터는 연면적 428.16㎡ 건축면적 176.14㎡ 규모로 총 4층 규모의 건물이다. 1층과 2층에는 누림주간보호센터 사무실 및 생활실이 있으며, 공양실과 어르신의 휴게공간이 있다. 휴게공간은 어르신의 건강을 위한 안마기와 침실이 있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 안락함을 더했다. 3층은 오피스텔로 활용되며 4층은 누림주간보호센터 직원 휴게실 및 창고이다.

누림주간보호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기능회복, 일상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다. 이용 희망자는 센터로 내방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누림주간보호센터는 천불정사 회주 고담 스님의 숙원사업이다. 고담 스님은 1999년 도심포교를 위해 부산의 중심 대학가에 도량을 세웠다. 지역 포교를 위해 지역 특성을 먼저 고려했고 인재불사를 위한 지원을 진행했다. 고담 스님은 매년 1000만 원씩 16년간 총 1억 6000만 원이 장학금을 부산대에 후원했다. 또 2006년부터 부산대 고시생을 위한 기숙사 '고담정'을 운영했으며, 부산대 고시지원반 '신목정' 학생들에게 숙식 및 학업 지원금을 후원해왔다. 매년 부산대 행정고시 합격생들은 천불정사를 방문해 고담 스님께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쌀 나눔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동지 팥죽 나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고담 스님은 지난 부산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금정구민 유공구민으로 표창, 향토봉사상, 교정대상 등을 수상했다.

고담 스님이 지향한 포교의 큰 그림은 여러 갈등 속에서 힘겨워하는 대중에게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대중에게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는 도량을 세우는 것이다.

고담 스님은 2018년 3월부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 계획을 수립했다. 출발은 고담 스님이 사비를 출현해 건축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었다. 이후 2021년 6월 23일 노유자복지시설 건축 증축 허가를 승인 받았으며, 이번 해 3월 22일 착공식 및 안전기원재를 봉행했다. 8월 30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0월 25일 노유자복지시설 4층 증축 허가 승인을 받았다. 11월 21일 누림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마무리했다. 입소정원은 24명이다.

창원 성주사불교대학 7기 졸업식·수계식

김기환 외 졸업생 총 58명 배출
김현옥, 김하정 등 9명 표창·수상



창원 성주사불교대학이 제7기 졸업식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12월 4일 설법전에서 봉행된 이날 졸업식 및 수계법회는 개식, 삼귀의, 한글반야심경, 거향찬, 청성, 청사, 개도(傳戒師), 참회, 연비, 귀의, 선계상, 졸업장 및 부동품계증 수여, 표창장 수여, 개근상 수여, 주지스님 법문, 내빈소개 및 축사, 축가, 발원문, 회향, 단체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법안 스님은 "학사모를 쓴 환한 모습을 보니 참된 불제자로서 공부한 내용을 실천하고 주변 도반들에게 실천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며 "항상 수행하는 불자가 되어 자비심을 베풀며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이순 신도회장은 "매번 불교대학에서 공부하지만 배움이 처음과 끝이 없는 것 같다"며 "지금부터는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진실 되고 최선을 다하며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해덕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천년고찰 성주사에서 졸업을 축하드리며, 포교사시험도 보고 참된 불자도 되어 성주사와 사회를 위해 불교대학에서 배운 수행과 정진을 열심히 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환 거사 등 58명의 졸업생과 수계제자에게는 졸업장, 수계증. 부동품계증이 전달됐다. 또 김현옥, 김하정 불자에 대한 성적우수자 표창이 이어졌으며, 김은경 불자 등 9명은 개근상을 수상했다.

한편, 성주사 불모학당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들과 불교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불교입문과정으로 연4회 10주 과정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불교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서 불모학당 수료자 및 기초교리 이수자를 위한 심화과정으로 불교대학 졸업자에게는 포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매년 3월 개강하여 10개월 과정이다.

성주사 곰숲 템플스테이 나를 찾는 행복여행으로 체험형(매주 주말), 휴식형(상시운영), 당일형(매주 수요일), 단체형(상담 후 진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의는 종무소(055-262-0108)로 하면 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성 옥천사 개산 1347주년 연화옥천 예술제

경남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가 개산 1347주년을 맞아 12월 3일 옥천사 자방루에서 연화옥천 개산예술제를 봉행하고 '내 마음속 7가지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고성 옥천사가 개산 1347주년을 맞아 12월 3일 연화옥천 개산예술제를 봉행했다.

마가 스님은 "최근 보물로 지정된 자방루의 보존방법을 고민하다가 외부의 보물만이 아닌 내 마음속의 보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옥천사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템플스테이와 함께 내 마음의 부처를 찾기 위한 상설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내 마음의 7가지 보물을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옥천사를 방문하는 대중은 법성게를 자연친화적인 대나무를 활용해 설치한 법성도를 돌아 자방루에 오르고 난 후 사경을 하며 마음의 답답함을 풀어내는 마음약방을 체험하게 된다.

치유의 물이라 불리는 옥샘체험은 산신각에서의 사업성취기도, 팔상전에서 부처님처럼 살기를 서원하고, 사람으로 인해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은 칠성전에서 좋은 인연 만나기를 기도한다. 건강을 기원하는 사람은 삼천불전에서 몸치유기도를 하고 몸과 마음이 피로한 사람은 약사전에서 옥샘물을 올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 나한전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명부전에서는 유서쓰기, '어서와 염라세계 지옥은 처음이지'를 체험할 수 있다. 또 성보박물관에서 '옛것을 통해 나를 보다' 연화산 숲속명상. 독립운동스님들과 함께하는 호국체험을 할 수 있다.

마가 스님은 "올해 예술제를 기점으로 명상프로그램의 대중화를 위해 부산과 창원, 진주, 옥천사 등에서 명상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며, 심산 스님, 만초 스님, 혜안 스님, 월호 스님, 금강 스님, 월호 스님 등 스님과 불교계인사 초빙 강연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 같은 계획을 더욱 발전시켜 뉴욕과 하버드대학, 샌프란시스코, 영국, 미얀마를 온라인으로 연결함으로써 명상대학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간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옥천사에서 가족, 친구, 도반과 한 달 동안 숙식하며 지내는 옥천사 한 달 살기, 청소년 명상캠프, 숲속 걷기 명상, 보현행원품 강설(자방루 경전마당)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삼광사, 시민과 함께하는 김장나눔문화제

김장김치 10kg 1000박스 전달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가 11월 30일 삼광사 대중공양실에서 제5회 시민과 함께하는 김장나눔문화제를 개최했다.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삼광사 교무 덕중 스님, 재무 무성 스님, 천태종복지재단 사무총장 자운 스님, 이헌승 국민의힘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및 복지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의 봉사자들이 동참했다.

삼광사는 개회식에 이어 배추 3000여 포기를 준비해 김장을 시작했으며 10kg 1000박스를 제작했다. 이날 만든 김장김치는 부산진구청(230박스), 다문화가정(450박스), 저소득가정(320박스)에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주지 영제 스님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절실할 때"라며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을 바탕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포교사단 경남, 2022년 포교 전진대회

12월 3일, 진주 롯데시네마 MBC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단장 박해덕)이 12월 3일 진주 롯데시네마 MBC홀에서 경남지역단 포교사단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전진대회에는 옥천사 마가 스님, 지도법사 쌍계사 덕룡 스님, 박해덕 경남포교사단 단장, 장건환 포교사단 부단장, 안정임 서부지역총괄팀장을 비롯한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단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입재식에서 인사말을 비롯해 상장수여, 축사, 격려사, 법문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영화 '불효자는 웁니다' 시청과 총괄팀별 단합대회 등으로 이어졌다.

박해덕 경남포교사단 단장은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라는 진우 스님의 당부처럼 이 시대 포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초발심을 간직하고 수행 정진하는 포교사가 되고 더 많은 포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음 해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원오사, 녹색사찰 되다

부산불교환경연대와 협약식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가 12월 1일 경내 대웅전에서 부산불교환경연대와 녹색사찰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현판 전달 및 인사말을 통해 환경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발원했다. 아울러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이 '녹색사찰의 활동 및 향후 방법' 제목의 강의를 진행했으며, 녹색사찰의 활동 방안을 소개했다.

원오사는 △일회용 사용줄이기 △빈 그릇 운동 △탄소중립 에너지 절약 △사찰숲 프로그램 제공 △지역의 환경문제에 공동대응 등을 실천함으로써 환경운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주지 정관 스님은 "환경보호는 미래 시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맑고 건강한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녹색사찰로서 불자와 지역민들이 환경보살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생명·환경' 세미나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정산)가 11월 30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생명존중 및 환경지키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생명존중 및 자연보호를 위한 종교별 사례를 발표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발표는 문태근 부산 마하사 거사회 회장의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정진숙 천도교 한울연대 공동대표의 '한울을 모시고 사람을 섬기며 만물을 받드는', 김두호 기장향교 사무국장의 '공자의 사상을 통해 본 생명존중', 배현공 원불교 부산울산교구 여성회장의 '원불교 여성회 환경운동 실천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정산 스님, 강덕제 원불교 부산울산교구 서면지구장 김창윤 기장향교 전교, 박차귀 천도교 부산교구장 등 종교 지도자들과 신도가 동참했다.

대표회장 정산 스님은 "서로를 위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종교를 초월한 화합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생명존중과 환경보호는 모든 인류의 바람이며 종교인의 실천과제"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불선원, 제13회 선불교대학 졸업식

23명 졸업 · 김태순, 이동호 표창



창원 진불선원 선불교대학(학장 무아)이 12월 3일 진불선원 5층 대적광전에서 제13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졸업식에는 진불선원 선불교대학 학장 무아 스님, 박성철 교수, 박종배 동문회장, 졸업생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으며, 졸업증 수여 및 신도품계증 수여, 시상, 회향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13기 졸업생은 총 23명이며 포교원장 표창은 김태순, 이동호 불자가 받았다.

학장 무아 스님은 "초발심을 잊지 않고 모두 중도에 낙오자 없이 졸업하게 되어 기쁘다"며 "진정한 졸업은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로 깨어날 때이다. 수행 정진으로 행복을 증득하시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박종재 동문회장은 "지혜와 자비의 길로 인도하시는 무아 학장 스님께 감사하다"며 "졸업하는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며 열심히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함안불교사암련 바웃다합창단 이웃돕기

정기연주회 수익금 210만 원 기탁



함안 불교사암연합회 바웃다 합창단(단장 박문자)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성금 210만 원을 함안군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바웃다 합창단이 11월 23일 개최한 제4회 정기연주회 '불음과 나눔으로 소통하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다.

이날 기탁식에는 조근제 함안군수, 함안불교사암연합회장 원명스님, 박문자 바웃다합창단장과 단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층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및 주거개선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문자 합창단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미흡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자타불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나눔으로 소통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근제 군수는 "우리 주변의 힘든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모금한 소중한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웃다합창단은 5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도 공연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한 바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